



보도시점 2023. 8. 30.(수) 09:00 배포 2023. 8. 30.(수) 07:00

## 전력기금 환수 T/F, 309억 원 환수

- 환수특정금액 680.4억원 중, 308.6억 원 환수 완료(환수율 45.4%)
- 세금계산서 축소 재발급 사례 1,937건,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

□ 정부는 지난 7월 18일 ‘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’ 후속조치로 관계 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/F\*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, 8월 28일까지 308.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.

- 이는 1,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.4억 원\*\*의 45.4%에 해당하며, 부문별 환수금액은 △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.0억 원, △금융지원사업 17.5억 원, △R&D 145.3억 원, △기타 63.8억 원이다.

\* 환수 TF 구성 : 국무조정실(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), 산업부, 농림부, 금감원, 한국전력공사(전력기금사업단)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\*\* 환수특정금액 680.4억 원 : 1차 276.8억 원, 2차 403.6억 원

□ 또한,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,937건,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(8.29.(화))하였다.

-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,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\*는 총 3,828건, 901명(일부 중복)으로,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.

\* 1차 수사의뢰(‘22.9.30) : 1,265건, 376명 /

2차 수사의뢰(‘23.7.17) : 626건, 150명 / 2차 추가 수사의뢰(‘23.8.28): 1,937건, 375명

□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·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책사업과	책임자	과 장 이성민 (044-995-2020)
		담당자	사무관 서동현 (044-995-2024)

◆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가동(7.18~)하여 금융지원사업 등 각 분야별로 담당기관\*에서 1, 2차 점검 환수특정금액 환수 추진 중

\* 금융지원사업(한국에너지공단),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(전력기금사업단), R&D(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), 기타(전력기금사업단, 한국에너지공단)

#### □ [사례1] 금융지원사업 대여자금 미반납 금액 환수(17.5억원)

- 부패예방추진단이 금융지원사업\* 운영실태 점검 중,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후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을 적발(총 17건, 17.5억원)

\* 금융지원사업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·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 지원

⇒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반납금 전액 환수('23년 2월)

#### □ [사례2]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사용잔액 환수(63.6억원)

- 부패예방추진단이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\*의 집행·결산·정산의 적정성 점검 과정에서, 미집행된 금액 282.1억원 중 재이월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잔액 63.6억원을 적발

\* 디젤발전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형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,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

⇒ 전력기금사업단을 통해 사용잔액 63.6억원 전액 환수('23년 8월)

#### □ [사례3] R&D 종료 후 사업비 미정산·미회수금 환수(116.3억원)

- 연구개발사업(R&D) 관련 점검 중,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(20건), 정산 미실시(39건), 정산금 미반납(50건) 등 미회수금 133.2억원을 적발

⇒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해당 과제 수행기관을 독촉하여 순차적으로 환수 중이며, 현재까지 116.3억원 환수 완료